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박인조 민경환
서울대학교

연구 1에서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을 제작하고 연구 2에서 제작된 감정단어 목록을 기초 자료로 감정의 차원을 탐색하였다. 연구 1의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의 제작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정보개발연구원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로부터 감정단어들을 추출하였다. 감정단어의 선정에는 감정연구자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434개의 감정단어들로 구성된 목록을 완성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단어에 대한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수준 등의 값을 얻었다. 연구 2에서는 이 감정단어 목록으로부터 87개의 대표적인 정서단어를 선정하여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를 사용하여 감정의 차원을 분석하였다. MDS 분석결과 두 과제 모두 첫 번째 차원으로 쾌-불쾌 차원이 나왔으며, 두 번째 차원은 잠정적으로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명명하였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영어권의 선행연구들에서 쾌-불쾌와 활성화 차원이 나온 것과 달리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1994) 연구와 본 연구 등 한국어 감정단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성화 차원이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감정단어 선정기준에서의 차이와 한국어 감정단어가 극단적인 활성화 값을 함축하지 않는 특성 등의 설명이 제기되었다.

주요어 :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 타인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감정의 어휘분석 연구

감정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생리적 지표, 얼굴표정, 언어적 표현 등이다. 정서의 생리적 지표들은 뇌파, 심전도, 안구운동, 피부전기활동, 체온, 호흡, 피부온도, 혈압, 혈류량, 동공크기 등의 자율신경계 변화들을 주로 포함한다. 생리적 지표는 객관적 측정치이며 의식되지 않는 정서상태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개별 감정에 따른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신뢰로운 측정치를 얻기가 어려우며, 감정외의 다른 정신 및 신체활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얼굴표정은 신경회로를 통하여 내적 감정상태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요한 감정들 각각에 대응되는 특징적인 표정을 갖고 있으므로 비언어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러나 얼굴표정은 의도적인 왜곡이 가능하고, 유사한 감정들(예 : 슬픔, 우울, 쓸쓸함, 답답)을 구분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감정의 언어적 표현은 생리적 지표나 얼굴표정과 같이 감정의 직접적 지표는 되지 못한다. 언어적 표현은 가장 개인적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문화나 당시의 상황이나 개인의 성격의 영향을 받아 축소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차폐될 가능성이 가장 크

다. 또한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적 표현은 감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은 가장 다양하고 섬세하게 내적 감정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발달된 감정표현 방식이다.

인간의 언어가 갖는 포괄성과 다양성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어휘분석을 통해서 성격이나 정서의 구조를 연구한다. 성격의 5요인 연구로 잘 알려진 Goldberg(1990)는 기본 어휘 가설(fundamental lexical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의 관계적 삶에서의 중요한 개인차들이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들 속에 어휘들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격연구자들은 성격기술 형용사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들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성격의 기본구조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밝혀낸 것이 성격의 5요인 구조로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오랜동안의 특질의 수와 내용에 관한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종 해답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Goldberg의 기본 어휘 가설은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인간이 삶에서 체험하는 중요한 감정들은 세계의 대부분의 언어들 속에 어휘들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감정단어들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이들을 분석하여 감정의 구조를 탐색하는 작업은 이와 같은 감정의 기본 어휘 가설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

감정의 어휘분석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은 감정단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단어의 목록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손꼽을 정도로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Bush(1972), Clore(1987), Storm과 Storm(1987)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1993)과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Bush(1972)는 이전에 성격 및 감정 연구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을 망라한 2,186개의 형용사를 기초단어로 연구를 시작했다. 2,186개의 단어들이 사람의 ‘행동’, ‘성격’, ‘감정’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위 세 범주 어디에도 적절하지 않거나 친숙하지 않은지’의 도합 네 가지 선택지 중 하나에 할당하도록 하여 264개의 형용사로 구성된 감정단어 목록을 마련했다. 그러나 Bush의

감정단어 목록에는 감정상태라기 보다는 신체의 활성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sleepy’나 ‘arous -ed’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Bush의 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Clore(1987)는 감정단어를 선별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두 개의 다른 언어적 맥락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feeling something이고 다른 하나는 being something으로서 응답자들은 각 단어를 이 두 개의 맥락에 놓였을 때 얼마나 감정단어로 인식되는지를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Clore 등은 총 585개의 감정단어 총집에서 각 단어에 대해 감정단어로서의 적절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Storm과 Storm(1987)은 초등학교에서 중년 성인에 이르는 38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 가지 과제를 통하여 감정단어를 수집했다. 즉 감정단어들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는 것, TV에 나온 인물들의 감정을 명명하는 것, 그리고 비디오에 나온 배우들의 감정을 명명하는 것의 세 과제를 통하여 총 786개의 감정단어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사전에서 감정단어를 추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인들이 표상하는 감정단어를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1994)이 Bush(1972)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성격이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형용사, 명사, 구, 동사 등을 망라하여 총 3,582개의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이차적으로, 연구자 2인과 심리학과 대학원생 3인이 단어의 인지도 및 성격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1,340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단어들을 대학생들로 하여금 성격, 행동, 감정, 신체감각의 네 범주 중 하나에 할당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85% 이상이 감정상태라고 평가한 단어들을 최종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213개의 단어들이 최종적인 감정단어 목록을 구성하였다.

최근에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일상생활 경험을 나타내는 감정단어들과 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감정단어들과 및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감정단어들을 총합, 정리하여 1515개의 목록을 얻었다. 이 단어들 중에는 수식어나 어미만 다르거나 의미가 매우 유사하거나 중복되

는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연구자 2인 및 석사 3인이 각 단어를 심사하여 5인중 3인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 제외할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818개의 감정단어들이 목록에 남게 되었고 여기에 유학사상의 4단 7정 감정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감정단어들 중 전체목록에서 중복되지 않는 16개의 감정단어들을 추가하여 총 834개로 구성되는 감정단어의 최종목록을 마련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목록에 포함된 감정단어들을 남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감정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감정경험빈도를 평정하도록하여 자료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적절성과 경험빈도를 고려하여 400개 내외의 감정단어 목록으로 축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본정서 이론과 정서의 차원이론

최근의 정서심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기본정서 이론(basic emotions theory)의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정서 이론은 개별정서이론(differential emotions theory)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Ekman과 Izard 등 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 의해서 대표된다. 한편 기본정서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Russell 등의 학자들은 그 대안으로 정서의 차원 이론(dimensional theory of emotion)을 주장한다.

기본정서 이론 혹은 개별정서 이론은 다음 몇가지 주장들로 구성된다. 첫째,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몇 개의 기본적인 정서들이 존재한다. 기본정서들의 수와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쁨, 분노, 슬픔, 공포, 혐오 등을 포함하는 8~14개의 자주 경험되는 정서들로 구성된다. 둘째, 이들 정서들은 진화론적 적응가치 때문에 발달되었다. 즉 이들 정서들은 인류의 진화사에서 자주 직면하는 삶에 중요한 상황에서 적응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달된 것이다. 예를 들면, 분노는 적에 대한 공격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공포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도망치는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기본정서들은 각 정서마다 고유한 특징들의 꾸러미들로 구성된다. 즉 각 정서마다 고유한 얼굴표정, 생리적 변화, 행동경향성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본정서 이론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지적한다. 첫째, 학자들마다 기본정서의 수와 내용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으며, 둘째, 기본정서와 기본적으로 지 않은 정서들을 구분할 근거가 설득력이 없고, 셋째, 개별정서 간을 구분해주는 지표로 거론되는 얼굴표정이나 생리적 지표들이 정서 간 변별의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기본정서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정서의 차원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별정서는 고유한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소수의 차원(혹은 성분)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또한 개인이 개별정서를 타고 나가거나 생래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서적인 성분들이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로 형성되어 나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서의 차원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도 정서가 어떤 차원(혹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정서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정서의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들을 소개한다.

정서의 구조 연구

정서의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들은 얼굴표정의 유사성 평정, 자기보고 정서체험의 요인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 분류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얼굴표정의 유사성 평정을 활용 Schlosberg(1952)의 연구에서는 ‘쾌-불쾌’와 ‘주의-거부’(attention-rejection)의 2개 차원이 발견되었으며, 후의 이론적 논문에서 활성화 수준과 관련된 ‘수면-긴장’(sleep-tension)이 제3의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Abelson과 Sermat(1962)은 얼굴표정의 유사성 자료를 다차원분석하여 ‘주의-배척’과 ‘수면-긴장’이 결합된 차원과 더불어 쾌-불쾌 차원을 얻었다. 또한 얼굴표정의 유사성에 근거한 다른 연구들(Gladstones, 1962; Russell, 1978)에서도 활성화 수준과 관련된 차원 및 쾌-불쾌의 차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자기보고 정서체험을 자료로 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Russell(1980)은 28개의 대표적인 감정형용사들을 제시한 뒤 각 형용사가 응답자들이 그 날 경험한 감정상태를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평정하게 하였다. 이 평정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쾌-불쾌’와 ‘활성화 수준’의 두 차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안신호 등

(1994)의 개관에 따르면, 임상사례나 영화감상, 환각제 사용,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분평정자료 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두 차원이 아니라 5-11 차원이 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쾌-불쾌 차원은 항상 중요한 차원으로 등장했지만 활성화 수준 차원은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최근에 Watson 등(Clark & Watson, 1988; Watson & Tellegen, 1985)은 정서체험이 '쾌-불쾌'와 '활성화 수준'의 두 차원이 아니라 '정적 감정'(positive affectivity)과 '부적 감정'(negative affectivity)의 두 개의 독립된 단극차원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Averill(1975)은 558개의 정서단어들을 의미 미분 방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Osgood의 연구(1957)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차원으로 발견된 '평가'(evaluation), '활동성'(activity), '힘'(potency)의 세 차원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마지막 차원인 '힘'은 '통제'와 '경험의 깊이'의 두 하위 요소로 분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 Russell (1978)에 따르면 평가는 '쾌-불쾌'와 가깝고 '힘'과 '활동성'은 '활성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쾌-불쾌'와 '활동성'의 두 차원이 여기서도 발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ussell(1978)은 MDS 분석을 사용한 연구 및 의미 미분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Averill, 1975; Block, 1957; Russell & Mehrabian, 1977)을 개관한 후, 쾌-불쾌와 활성화 차원에 대한 일관되고 강한 증거와 통제, 지배, 경험의 깊이와 같은 제 3의 차원에 대한 약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213개의 한국어 감정 단어 목록에서 무작위로 69개 내지 72개씩 12가지 감정 단어 군으로 나누어 처음에 최대한 많은 범주로 분류하게 한 다음, 순차적으로 범주 수를 앞 시행 범주의 2분의 1정도로 줄이며 분류하게 하였다. 이 12가지 군의 자료를 MDS 분석한 결과, 제 1차원으로 '쾌-불쾌'가 밝혀졌지만 제 2차원으로 '활성화 수준'은 나오지 않았다. 영어 감정단어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제2차원으로 나오던 '활성화 수준'이 안신호 등의 연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주목할 점이었다. 안신호 등(1994)의 후속연구에서는 12가지 단어군을 이전 연구와 달리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결과는 동일하였다. 안신호 등은 영

어 감정단어 목록에서 활성화를 나타내지만 감정단어로 간주되기 어려운 'sleepy'나 'tired'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을 마련하고 둘째, 이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정서의 차원을 밝히는데 있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감정단어 목록은 본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발표되었거니와 안신호 등(1993, 1994)은 이미 여러해 전에 감정단어 목록과 그 목록에 기반을 둔 정서구조의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정단어 목록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에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현대 한국어 어휘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어휘총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신호 등(1993)과 한덕웅과 강혜자(2000)의 감정단어 목록은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밖의 출처에서 어휘들을 수집하였는데 빈도가 조사되기 이전이어서 빈도가 높은 중요한 어휘들이 누락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선정되거나 하는 등의 표집에서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는데 연세대학교 어휘총집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오류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신호 등의 목록에서는 감정단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일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뒤숭숭하다', '궁금하다', '꿈같다' 등의 단어들은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록에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들의 단어목록에 비감정단어들이 포함된 이유는 첫째, 감정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감정단어를 평정시켜서 목록을 마련한 것과 둘째, 감정단어로 잘못 분류될 수 있는 '동기'나 '관계' 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본 연구 1에서는 감정현상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감정 단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담당했으며, '신체감각', '성격', '감정상태', '행동' 등 기존의 범주에 '동기', '관계', '구로 표현될 경우 감정단어로 보이는 것', '기타'의 범주를 추가하여 감정단어 목록에 들어갈 단어를 선별하였다.

감정단어를 통하여 정서의 구조(혹은 차원)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안신호 등, 1993; Russell, 1991)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아무 제한도 주지 않고 자유롭게 범주를 나누어 단어들을 묶게 하는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를 활용하였다. 이 과제는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분류를 유도하는 반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갖고 있다.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는 달리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분류 범주와 수행 횟수를 정해주어 분류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유사성 분류과제를 모두 사용하여 정서구조를 탐색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안신호 등과는 다른 목록과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안신호 등에서의 같은 차원들이 발견될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 1.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

연구 1의 목적은 정서의 차원을 탐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정서단어들의 목록을 마련하는 것과, 선정된 단어들에 대하여 ‘원형성(prototypicality)’, ‘친숙성(familiarity)’, ‘쾌-불쾌’, ‘활성화 수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1에서는 감정단어 목록에 수록될 단어들을 선별하였고, 조사 2에서는 선별된 감정단어들이 얼마나 감정단어로서 적절한지와 친숙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감정단어에 대해 ‘원형성’과 ‘친숙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3에서는 ‘쾌-불쾌’와 ‘활성화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 1-1.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될 단어들의 선정
 선행 연구들(Bush, 1973; 안신호 등, 1993)의 목록에 포함된 단어들을 검토해보면, 감정단어 목록을 마련하는데 사용한 방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안신호 등(1993)은 213개의 감정단어들을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영어의 경우 대체로 500개 내외의 단어를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어 감정단어들 중 누락된 단어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213개의 감정단어 목록을 검토해 보면 ‘꿈같다’, ‘궁금하다’, ‘몽롱하다’, ‘든든하다’와 같이 신체감각이나 동기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감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가슴에 맺히

다’, ‘가슴이 설레다’, ‘가슴이 타다’ 등과 같이 일종의 관용구인데 감정단어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관용구의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연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관용구를 포함할 경우 목록이 무한정 커질 가능성이 있고 목록의 성격상 개별단어들이 감정상태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들만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일반 대학생들에게 감정단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맡긴 것과, 감정상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단어가 아닌 것들을 배제시키는 절차가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1-1의 목적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달리하여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될 단어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감정단어 선별을 일반 대학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감정현상에 관한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감정단어를 선별하였고, 오관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신중하게 비감정단어들을 선별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감정으로 혼동되는 단어들을 선별해 내기 위해 선행 연구의 ‘신체감각’, ‘성격’, ‘감정상태’, ‘행동’의 네 범주를 ‘동기’, ‘관계’, ‘구로 표현될 경우 감정단어로 보이는 것’, ‘기타’의 범주를 추가하는 여덟 범주로 늘려서 감정단어 목록에 들어갈 단어들을 엄격히 선별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대학교 정서연구실에서 감정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원 10명(박사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 졸업생 2명, 석사 과정생 5명)이 감정단어의 선별에 참가하였다.

자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했다. 이 자료집은 최근 10년 동안에 출판된 신문, 잡지, 소설 및 수필, 취미 및 교양, 수기 및 전기, 국어 교과서, 희곡 및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빈도 7이상 인 총 64,666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절차

1차 감정단어 선정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형용사, 동사, 명사의 세 품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총 64,666개 단어로 구성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총집에서 이 세 품사의 단어만 간추린 결과, 형용사 3,235개, 동사 10,301개, 명사 38,739개 등 총 52,275개의 단어가 남았다. 대개는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로 감정상태를 나타내지만 한자인 ‘애수’, ‘정감’, ‘희비’ 등의 단어들은 동사나 형용사 형태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명사형태의 단어들도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52,275개의 단어목록을 5명의 연구원에게 각각 복사하여 나누어주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감정과 관련된다 고 생각되면 체크하도록 하였다. 단기간에 52,275개의 단어를 검토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주일에 걸쳐 조사하도록 하였다. 5명의 연구원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감정단어라고 체크한 단어들의 총수는 3,781개 었다. 이 단어들을 다시 연구원 전원(10명)에게 검토하도록 하여 6명 이상이 감정단어라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1,218개로 줄였다.

2차 감정단어 선정

1,218개의 단어들 중에는 형태론적 이형체(morphological variants), 즉 동일 어원을 갖고 있으나 상이한 품사의 형태를 지닌 단어들 및 어근은 같으나 어미가 다른 단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단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형태론적 이형체의 경우 형용사, 동사, 명사의 순서로 단어들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걱정스럽다’(형용사)와 ‘걱정하다’(동사)에서 ‘걱정스럽다’를, ‘갈등’(명사)과 ‘갈등하다’(동사)에서는 ‘갈등하다’를, ‘고독’(명사)과 ‘고독하다’(형용사)에서는 ‘고독하다’를 남겼다. 형용사, 동사, 명사의 순서로 남긴 이유는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정도가 명사보다는 동사가, 동사보다는 형용사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에 -감, -심, -적 등의 접미사를 추가하여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의 경우 접미사가 없는 명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시켰다. 예컨대, ‘공포’, ‘공포심’, ‘공포감’의 단어들이 있다면 ‘공포’만 남겼다. 또한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될

단어는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에 국한시키기로 하고 감정표현을 기술하는 단어들은 배제하였다. 예를 들면, ‘키스하다’, ‘포옹하다’ 등의 감정표현 단어들을 제외시켰다. 능동형과 수동형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능동형을 채택했다. 예컨대, ‘부끄러워하다’와 ‘도취하다’의 단어가 있었으므로 ‘부끄러워지다’와 ‘도취되다’는 제외시켰다. 이러한 선별과정은 연구원 2인이 위의 통사론적 규칙에 의해서 단어를 선별하고 추후에 연구원 10인이 모여서 배제된 단어와 선정된 단어가 타당하지 확인했다. 2차 감정단어 선별을 통과한 감정단어는 총 788개였다.

최종 감정단어 선택

788개의 감정단어를 검토한 결과, ‘격하다’, ‘열나다’, ‘상사병’ 등과 같이 감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이유는 실제로는 ‘성격’, ‘신체감각’, ‘감정표현(행동)’, ‘동기’, ‘관계’ 등에 더욱 가깝지만 이러한 범주들이 의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혼동될만한 단어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화친’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감정단어로 혼동될 수 있으며, ‘한시름’은 ‘한시름 놓다’라고 구로 표현될 경우 감정단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희구하다’는 동기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역시 감정단어로 혼동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안신호 등(1993)에서 사용한 ‘감정상태’, ‘신체감각’, ‘감정표현(행동)’, ‘성격’의 네 범주에 ‘관계’, ‘동기’, ‘구로 표현될 경우 감정단어로 보이는 것’, ‘기타’를 추가한 여덟 범주를 만들고, 788개의 단어 각각이 여덟 범주 중에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연구원 8명에게 판단하도록 했다. 만약 한 단어가 여러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경우, 해당되는 범주들 모두에 할당하도록 했다.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감정상태’ 범주에 할당된 단어는 총 434개로 서 이것을 최종적인 감정단어 목록으로 정했다.

결 과

434개의 감정단어들은 부록 1에 가나다 순서로 제시되어있다.

연구 1-2. 감정단어의 원형성과 친숙성 조사

연구 1-2에서는 선별된 단어들 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감정단어로서 적절한지와 얼마나 친숙한 단어들 인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비록 감정전문가들이 감정단 어로 분류한 단어들이지만 일반인들이 얼마나 감정단 어로 적절하게 느끼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감정단 어 목록 속에 함께 수록된 단어들이지만 어떤 단어들 이 감정단어로 더욱 적절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감 정단어로서의 적절성 혹은 원형성 점수는 후에 감정단어 목록을 축소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선별기준의 하나 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빈도 7 이상인 어휘들 을 선별 수집하였고 각 단어별로 빈도가 확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이 단어들 을 얼마나 친숙하 게 느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수집된 단어의 빈도가 이 체 감빈도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친숙 성 점수 또한 후에 감정단어 목록을 축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선별기준의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감정단어의 선별과 일반인들에 의한 원형성 및 친숙 성 조사의 이원적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이면 서 심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생각이다. 원형성과 친숙성의 조사에는 Averill(197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 법

참가자

한양대학교에서 ‘정신위생A’를 수강하는 학부생 136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불성실 응답자 17명을 제외한 119명 (남 : 79명, 여 : 40명)의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재료

연구 1-1의 결과에서 나온 434개의 감정단어가 재료 로 사용되었다.

절차

‘원형성’과 ‘친숙성’ 평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434개의 단어를 100개 정도씩 한 페이지에 넣고 그 단 어들 각각이 감정단어로서 얼마나 적당한지를 ‘감정 단 어의 매우 좋은 예이다’에서 ‘감정단어의 매우 나쁜 예

이다’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이 ‘원형성’ 평 정이고, 같은 단어를 순서만 바꾸어 제시한 후 단어들 이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를 ‘전혀 친숙하지 않다’ 에서 ‘매우 친숙하다’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이 ‘친숙성’ 평정이다. 한 사람이 원형성과 친숙성을 모두 평정해야 하므로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인지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업 전에 학생들 에게 나누어준 다음 일주일 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모든 평정을 완료해서 제출한 사람에게는 과제 점수를 부여한다고 말하여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과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해도 평정해야하는 수행 양이 많기 때문에 불성실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 라서 불성실한 응답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만 교어이거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전혀 친숙하지도 감정단어로서 보이지도 않는 ‘너가다’, ‘모름하다’, ‘막장부 축’, ‘노느다’의 끼워 넣기 문항(filler) 4개를 포함시켰다. 총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했으나 수거된 것은 136개였다. 끼워넣기 문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불성실 응답자의 설문 지 17개를 제외한 총 119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원형성과 친숙성 분포

434개 감정단어에 대한 원형성과 친숙성의 평균값이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원형성 평균값의 범위는 2.25 (회오)에서 5.98(기쁘다)이었고 친숙성 평균값의 범위는 1.70(회오)에서 6.19(기쁘다)였다. 평균값의 범위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와 비율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회오’, ‘송연하다’, ‘시름겹다’, ‘떠름하다’, ‘기껍다’ 와 같은 단어들 이 원형성 평균값이 가장 낮은 단어들이 었고 ‘신나다’, ‘반갑다’, ‘즐겁다’,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와 같은 단어들 이 원형성 점수가 가장 높은 단

표 1. 감정단어의 원형성과 친숙성 분포

	1~1.99	2~2.99	3~3.99	4~4.99	5~5.99	6~6.99
원형성	14(3.2)	166(38.2)	208(47.9)	46(10.6)		
친숙성	2(5)	21(4.8)	96(22.1)	175(40.3)	130(30.0)	10(2.3)

주. 원형성과 친숙성 모두 7점 척도(1~7) 상의 점수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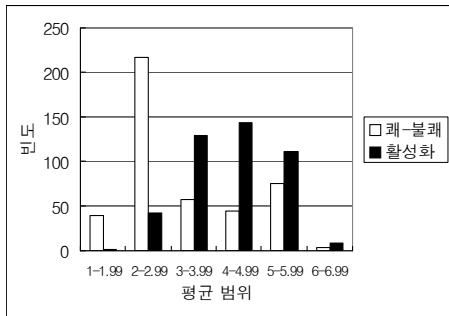


그림 1. 감정단어의 패-불패와 활성화 분포
 주. 높은 값일수록 패 및 활성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어들이었다. ‘회오’, ‘송연하다’, ‘처연하다’, ‘뜨악하다’, ‘정한’과 같은 단어들 친숙성 평균값이 가장 낮은 단어들이었고 ‘좋다’, ‘사랑스럽다’, ‘고맙다’, ‘반갑다’, ‘재미있다’, ‘기쁘다’와 같은 단어들 친숙성 평균값이 가장 높은 단어들이었다. 원형성과 친숙성 평균값을 가장 낮게 받은 단어들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고 가장 높게 받은 것은 주로 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다.

원형성, 친숙성, 빈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어휘빈도 자료집에 표시된 빈도와 본 연구의 친숙성과 원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어휘자료집의 빈도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친숙성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다($r=.26, p<.01$). 어휘자료집의 빈도와 본 연구의 원형성과도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22, p<.01$). 반면, 원형성과 친숙성은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88, p<.01$).

연구 1-3. 감정단어의 패-불패 및 활성화 수준조사

감정 표상에서 중요한 차원이 ‘패-불패’와 ‘활성화’라는 것이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감정단어를 표상하는데 두 개의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감정단어들이 두 차원에 해당하는 값을 어느 정도씩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 감정단어가 두 차원을 어느 정도씩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434개의 감정단어가 ‘패-불패’와 ‘활성화’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7점 척도 상에서 분포를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경상대학교에서 ‘마음의 문제’를 수강하는 학부생과 한양대학교에서 ‘정신위생B’를 수강하는 학부생 246명 (남: 138명, 여: 108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자료

연구 1-1의 결과에서 나온 434개의 감정단어가 자료로 사용되었다.

절차

한양대학교 학부생 123명이 ‘패-불패’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에 응하였다.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경우 매우 쾌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매우 불쾌합니다”와 같이, 패 감정의 경험과 불쾌 감정의 경험에 대한 상황적인 예를 설명하고 단어들에 그러한 정도를 얼마나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매우 불쾌(1)’에서 ‘매우 쾌(7)’까지 7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했다. 경상대학교 학부생 123명이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에 응하였다. 활성화 경험과 비활성화 경험에 대한 상황적인 예를 설명하고 단어들에 그러한 정도를 얼마나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매우 비활성화(1)’에서 ‘매우 활성화(7)’까지 7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했다. ‘패-불패’와 ‘활성화’를 평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결 과

감정단어의 패-불패와 활성화 분포

434개 감정단어에 대한 ‘패-불패’와 ‘활성화’의 평균 값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패-불패’ 평균값의 범위는 1.29(울화통)에서 6.24(홀가분하다)였고 ‘활성화’ 평균값의 범위는 1.90(안락하다)에서 6.66(열광)이었다. ‘울화통’, ‘모멸’, ‘참담하다’, ‘한뎃히다’와 같은 단어들이 불쾌 값이 가장 높았고 ‘영광스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홀가분하다’와 같은 단어들이 쾌 값이 가장 높았다. ‘안락하다’, ‘안도하다’, ‘평안하다’, ‘무력감’과 같은 단어들이 활성화가 가장 낮은 단어들이었고 ‘경악하다’, ‘성나다’, ‘분노하다’, ‘열광’과 같은 단어들이 활

성화가 가장 높았다. 평균값에 따른 감정단어의 쾌-불쾌와 활성화 분포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감정단어의 쾌-불쾌와 활성화간의 관계

‘쾌-불쾌’ 차원 상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이 1~3.99 범위에 있는 단어들은 ‘불쾌’로 재코딩하고 4~7 범위에 있는 단어들은 ‘쾌로 재코딩하여 빈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불쾌 감정단어들(312개)의 빈도가 쾌 감정단어들(122개)의 빈도보다 높았다.

‘활성화’ 차원 상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하는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이 1~3.99 범위에 있는 단어들은 ‘저활성’으로 명명하고 4~7 범위에 있는 단어들은 ‘고활성’으로 명명하여 빈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활성 감정단어들(262)이 저활성 감정단어들(172)의 빈도보다 높았다.

‘쾌-불쾌’와 ‘고활성-저활성’의 두 차원 상에서 감정단어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평균값을 재코딩한 값을 교차표로 빈도 분석하였다. 불쾌 단어에서 저활성 단어보다 고활성 단어의 더 비율이 높았고($\chi^2(1)=4.63, p<.05$), 쾌 단어에서도 역시 저활성 단어보다 고활성 단어의 비율이 더 높았다($\chi^2(1)=22.16, p<.001$).

표 2. ‘쾌-불쾌’와 ‘활성화’의 교차 빈도와 비율(%)

		쾌-불쾌		
		불쾌(%)	쾌(%)	합계(%)
활성화	저활성	137(43.9)	35(28.7)	172(39.6)
	고활성	175(56.1)	87(71.3)	262(60.4)
합계		312(71.9)	122(28.1)	434(100.0)

표 3. 감정단어의 쾌-불쾌, 활성화, 원형성, 친숙성간의 상관

	쾌-불쾌	활성화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			
활성화	-.01	·		
원형성	.48**	.11	·	
친숙성	.23**	.05	.88**	·

** $p<.01$

감정단어의 쾌-불쾌, 활성화, 원형성, 친숙성간의관계

연구 1-2에서 얻은 원형성, 친숙성과 연구 1-3에서 얻은 쾌-불쾌, 활성화 등 네 측정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쾌-불쾌와 친숙성이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r=.23, p<.01$) 상관계수는 높지 않았으며 쾌-불쾌와 원형성이 꽤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48, p<.01$). 한편, 활성화는 쾌-불쾌, 원형성, 친숙성 어느 것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감정단어 목록에 들어갈 단어를 선별하고 각 단어들에 대하여 감정단어로서의 적절성, 친숙성, 쾌-불쾌의 수준, 활성화 수준을 각각 조사하였다.

연구 1-1에서는 감정단어 목록에 포함될 단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어휘빈도를 고려하여 일정빈도(빈도 7) 이상의 단어들을 기본재료로 감정단어들을 조사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점에서 감정단어 목록의 제작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Bush, 1972, Averill, 1975, 안신호 등, 1993)과 차별화 된 절차를 사용했다. 첫째, 감정단어의 선별을 감정현상을 연구하는 감정전문가들이 담당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이 감정단어의 선별을 맡았는데 이들은 감정의 정의나 유형을 잘 모르고, 감정과 다른 심리과정들(동기, 관계, 성격, 감정표현 행동 등)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선행연구의 감정단어 목록들에는 감정단어라고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정단어 목록은 감정의 구조를 비롯한 감정의 다양한 어휘분석 연구의 기초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록의 제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단계의 시행을 거쳐서 신중하게 단어들을 선별했다는 점이다. 일회적인 평정에 의거하여 감정단어를 선정할 경우 감정단어들이 누락되거나 비감정단어들이 포함될 경우 이를 교정할 기회가 없다. 셋째, 선행연구(안신호 등, 1993)에서는 감정단어로 잘못 분류되기 쉬운 비감정단어들을 골라 내기 위해서 ‘신체감각’, ‘성격’, ‘감정상태’, ‘행동’의 네 범주를 제시하고 단어들

을 할당하도록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감정단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동기’, ‘관계’, ‘구로 표현 될 경우 감정단어로 보이는 것’, ‘기타’의 네 범주를 추가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총 434개의 단어들은 상당히 정확한 감정단어 목록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2에서는 감정단어 목록에 선정된 단어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감정단어로서 적절한지(원형성)와 친숙하게 느껴지는지(친숙성)를 조사하였는데 원형성 점수가 매우 낮은(2.0 미만) 단어들과 매우 높은(6.0이상) 단어들은 없었고 중간(3.0~5.0) 정도의 단어들이 많았다. 친숙성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감정단어의 친숙성과 어휘빈도 사전의 빈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관계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어휘빈도 자료집의 빈도가 신문, 잡지, 소설책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추출되었는데 친숙성을 평정한 대학생이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어휘빈도 사전에는 구어(口語)에 속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어야말로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단어일텐데 어휘빈도 자료집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셋째, 빈도가 어느 정도 수준(빈도값 7) 이상인 단어들을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단어들 간에 친숙성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감정단어의 원형성 점수와 친숙성 점수는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약간 의아스럽지만 감정단어들 내에서는 보다 친숙한 단어일수록 보다 감정단어로서 잘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 1-3에서는 각 감정단어들이 쾌-불쾌와 활성화를 어느 정도 내포하는지 조사하였다. 불쾌 감정단어들이 쾌 감정단어들보다 7:3 정도로 많았고, 고활성 감정단어들이 저활성 감정단어들보다 6:4의 비율로 많았다. 기본 정서 이론가들(Johnson-Laird, P.N., 1989;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1987)은 불쾌 정서가 쾌 정서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류의 진화사에서 쾌 정서보다 불쾌 정서의 구별과 대처가 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불쾌 감정단어의 비율이 쾌 감정단어의 비율보다 높게 나온 점은 점을 이해가 된다.

Shaver(1987)의 연구에서도 135개의 대표적인 감정단어들의 군집 분석을 통해 사랑, 기쁨, 놀람, 슬픔, 분노, 공포의 다섯가지 기본 정서를 얻었는데, 그중 쾌 정서인 사랑과 기쁨에 포함되는 단어들은 49개였고 나머지는 불쾌 감정단어들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활성 감정단어가 저활성 감정단어보다 많게 나온 것은 정서의 체험이 어느 정도의 활성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납득이 된다. 쾌와 불쾌 감정단어를 구분하여 저활성 단어와 고활성 단어의 비율을 조사할 결과도 쾌, 불쾌 모두 고활성 감정단어가 저활성 감정단어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쾌-불쾌는 원형성 및 친숙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관념이 주로 쾌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쾌 감정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쾌 감정단어들을 보다 감정단어로서 적절하게 느끼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비록 선행연구들의 절차를 개선하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되도록 완벽한 감정단어 목록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은 연세대학교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빈도’에 의존하여 감정단어들을 추출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의거했던 국어사전보다 최신의 어휘들이 실려있고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단어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아직 ‘현대 한국어의 어휘빈도’가 한국어 어휘들을 잘 포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의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 역시 원 자료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유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정연구자들이 감정단어를 선별하였지만 감정-비감정 단어의 구분은 감정연구자들에게도 여전히 힘든 과제였다. 그 이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다’는 감정단어는 아니지만 감정의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감정연구자들이 동원되었지만 사실상 감정-비감정 단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감정단어 목록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감정단어 목록에는 감

정표현 단어들에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연구 2의 정서의 차원 연구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었으나 정서표현 단어들을 별도로 표시하여 포함시킨 목록이 마련되었다면 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감정단어 목록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숙성, 원형성, 쾌-불쾌, 활성화 수준등의 값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값들이 지표로서 유용하려면 보다 다양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값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지표 외에도 감정단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보들, 예를 들면 해당 단어가 어떤 기본 정서군에 속하는지 등의 정보들이 제공되면 보다 유용한 정서목록을 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작업들은 후속 연구에서 시도할 계획이다.

연구 2. 정서의 차원 탐색

연구 2의 목적은 정서의 주요한 차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의 얼굴표정, 정서체험, 정서단어 등을 재료로 한 연구들에서 ‘쾌-불쾌’와 ‘활성화 수준’의 두 차원이 정서의 주요한 차원들로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쾌-불쾌’ 차원은 확인되었으나 ‘활성화 수준’이 나오지 않았다. 안신호 등은 감정단어들을 사용한 영어권 연구들(Russell, 1978; Watson & Tellegen, 1985)의 경우, ‘sleepy’나 ‘tired’ 등 활성화를 나타내지만 정서단어로 보기 어려운 단어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수준’이 나왔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전문가들이 선별한 새로운 감정단어 목록을 재료로 사용하고, 안신호 등이 사용한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 더불어 Alvarado(1998)가 감정단어의 범주적 분석에서 활용한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를 사용하면서 과연 ‘쾌-불쾌’와 ‘활성화 수준’의 두 차원이 나오는지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재료와 과제를 달리 하였을 때도 이 두 차원이 나온다면 이 차원들은 상당히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서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최초 분류에서 재량껏 분류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류를 유도하는 반면 과제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는데 반해,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에서는 최초분류에서 두 묶음으로 분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과제가 용이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연구 2-1.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를 통한 정서의 차원 탐색

연구 2-1에서는 정서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1-1에서 작성된 감정단어 목록을 재료로 활용하고 안신호 등(1993)과 동일한 과제(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 절차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 대학교에서 ‘인간관계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 40명(남 28명, 여 1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재료

연구 1에서 마련된 감정단어 목록의 434개 단어 중 원형성과 친숙성 모두에서 평균이 4.0 이상인 단어들은 총 225개였다. 225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분류과제를 시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정연구실 연구원 3명이 단어들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었다. 그 결과 총 87범주로 분류되었고 각 범주별로 원형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대표단어로 선택했다. 이렇게 선정된 87개의 대표 감정단어들과 각 단어들의 쾌-불쾌 및 활성화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

선정된 87개의 대표단어가 적혀있는 7.5×4.5cm 크기의 카드 87매를 큰 책상에 펼쳐 놓고 참가자가 어떤 어떤 단어들에 있는지 확인하게 했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끼리 재량껏 분류하도록 지시했다. 품사의 종류나 단어의 길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말고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분류를 한 후,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단어의 고유번호를 분류한 범주별로 기록하게 하였다. 1차 분류에서는 재량껏 분류하되 되도록 범주 수를 많도록 하고,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얻은 범주의 반

3차 분류에서는 2차 분류의 반, 4차는 3차의 반 등으로 범주 수를 반으로 줄여가며 분류하고여 참가자가 더 이상 분류가 곤란하다고 말할 때까지 분류하도록 했다. 앞 분류가 뒷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 분류마다 카드를 무선적으로 섞어서 피험자에게 주었다. 앞 분류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 단어들이지만 뒷 분류에서는 다른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지시를 주었다.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20분이었다.

결 과

유사성 지표의 결정

한 참가자가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에서 판단한 두 단어의 유사성 정도는 두 단어가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빈도와 관련된다. 또한, 두 단어가 같은 범주에 속하더라도 나누어진 범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적은 경우보다 유사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참가자의 분류과제 자료에서 두 단어의 유사성 정도는 분류된 범주 수를 고려하여 합산함으로써 결정된다.

한 참가자의 여러 시행 분류 자료에서 두 단어의 유사성 정도는 여러 분류 시행들에서의 범주 수의 합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가 20 범주(1차 분류), 10 범주(2차 분류), 5 범주(3차 분류)로 분류하였고, A와 B의 두 단어가 2차와 3차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와 B 두 단어의 유사성 정도는 $10+5=15$ 가 된다. 한 참가자의 두 단어의 유사성 최대치는 매 분류마다 두 단어가 같은 범주에 속한 경우로서, 사용된 범주의 총합이며(예의 경우 $20+10+5=35$) 최소치는 0이다.

각 참가자가 분류한 횟수와 사용한 총 범주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참가자가 사용한 총 범주 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범주 수를 사용한 참가자의 자료가 적은 범주 수를 사용한 참가자의 자료보다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 참가자의 자료에서 두 단어의 유사성의 최종 지표는 ‘두 단어가 같은 범주에 속했던 때의 범주 수의 합’을 ‘참가자가 사용한 총 범주 수’로 나눈 값이다. 예의 경우, A와 B 두 단어의 유사성 최종지표는 $15/35=0.43$ 이다.

정서의 차원 탐색

위에서 서술한 유사성 지표를 집계하여 참가자당 87×87 행렬을 만들어 MDS의 ALSCAL의 Young S-stress 공식 1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2개의 차원을 얻었으며, 각 단어들의 이 2개 차원상에서의 좌표값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반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정겹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실망하다, 화나다, 미안하다, 억울하다 등이 다른 한 극을 이루었다. 이 차원은 ‘쾌-불쾌’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쾌심하다, 황당하다, 배신감, 싫증나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절망하다, 안타깝다, 상실감, 후회하다 등이 다른 한극을 이루었다. 이 차원은 ‘활성화’ 차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웠으며, 상당히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타인 초점적 -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료에 가까운 해석일 듯 싶다.

연구 2-2. 제한 유사성 분류 과제를 통한 정서의 차원 탐색

연구 2-2에서는 제한 유사성 분류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의 차원을 확인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대학교에서 ‘인간관계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부생 40명(남 30명, 여 10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재료

연구 2-1에서와 동일한 재료(87개의 감정 대표단어들을 적어 놓은 7.5×4.5 cm 카드 87매)를 사용하였다.

절차

분류방식만을 제외하고는 연구 2-1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에서는 단어들을 1차 분류에서 두 범주로 나누고,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얻은 범주들 각각을 다시 두 범주씩으로 나누고, 3차 분류에서는 다시 2차 분류에서 얻은 범주들 각각을 두 범주씩으로 나눈다. 그러므로 1차 분류에서는 2 범

주, 2차 분류에서는 4 범주, 3차 분류에서는 8 범주를 얻게 된다. 매 분류 후에는 연구 2-1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단어의 고유번호를 분류한 범주별로 기록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였다.

결 과

유사성 지표의 결정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에서는 두 단어가 1차 분류에서 같은 범주에 들어가면 2점을 주고 2차 분류에서도 같은 범주이면 4점을 추가하며 3차 범주에서도 동일한 범주에 속하면 8점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두 단어가 세 번의 분류에서 모두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경우에는 유사성 점수가 최대치인 $2+4+8=14$ 가 된다. 유사성 점수의 최소치는 0이다. 예를 들어 A 단어와 B 단어가 1차와 2차 분류에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고 3차 분류에서 범주가 달라졌다면 두 단어의 유사성 정도는 $2+4+0=6$ 이 된다. 유사성 점수에 총 범주 수인 14를 나눈 값이 최종 점수 지표이다. 예에서 A와 B의 유사성 지표는 $6/14=0.43$ 이 된다.

정서의 차원 탐색

연구 2-1과 동일하게 유사성 지표를 집계하여 참가자당 87×87 행렬을 만들어 MDS의 ALSCAL의 Young S-stress 공식 1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2개의 차원을 얻었으며 각 단어들의 이 2개 차원상에서의 좌표값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반하다, 즐겁다, 재미있다, 평화롭다, 편안하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실망하다, 의심스럽다, 약오르다, 미안하다, 샘내다 등이 다른 한 극을 이루었다. 이 차원은 '쾌-불쾌'로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이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증오하다, 배신감, 경멸하다, 패씸하다 등이 한 극을 이루었고, 놀라다, 황당하다, 망설이다, 안타깝다 등이 다른 한 극을 이루었다. 이 차원은 해석하기가 난감한데, 여전히 '활성화' 보다는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료에 더 가까운 듯 하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의 두 과제를 통하여 정서의 차원을 탐색했다. 두 과제 모두에서 첫 번째 차원으로는 '쾌-불쾌' 차원이 나왔으며, 두 번째 차원은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잠정적으로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차원은 '정서유발의 소재'나 '정서경험의 깊이'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자유 유사성 분류과제와 제한 유사성 분류과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과제 모두 첫 번째 차원에 따른 감정단어들의 배열은 아주 유사하였지만, 두 번째 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감정단어를 재료로 정서차원을 구했을 때, 첫 번째 차원은 사용된 재료나 분류과제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쾌-불쾌' 차원으로 나오지만, 두 번째 차원은 재료나 분류과제의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안신호 등 (1993; 1994)의 연구에서도 첫 번째 차원은 일관성있게 '쾌-불쾌'로 나온 반면, 두 번째 차원은 일관되지 못하고 해석도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 감정단어들을 구성하는 두 번째 차원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영어권의 연구들과 달리 안신호 등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활성화' 차원이 일관성있게 나오지 않은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안신호 등은 그 이유로 영어권의 연구들이 'sleepy'나 'tired'와 같은 활성화를 나타내지만 감정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안신호 등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하였고, '활성화' 차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신호 등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감정단어 자체가 '활성화'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어 감정단어의 경우 (아마도 영어등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단어 하나 하나가 쾌-불쾌의 정도는 비교적 잘 전달하지만 극단적인 활성화 수준은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극단적인 활성화 수준을 나타낼 때는 감정단어(주로 형용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우', '대단히', '아주', '전혀' 등 부사의 도움을 받는

표 4. 87개와 434개 감정단어들의 '쾌-불쾌' 및 '활성화'값에 따른 빈도 비교

평균 범위	쾌-불쾌		활성화	
	87개	434개	87개	434개
1~1.99	12(13.8)	39(9)	0(0.0)	1(0.2)
2~2.99	38(43.7)	216(49.8)	7(8.0)	42(9.7)
3~3.99	7(8.0)	57(13.1)	21(24.1)	129(29.7)
4~4.99	5(5.7)	44(10.1)	38(43.7)	143(32.9)
5~5.99	22(25.3)	75(17.3)	20(23.0)	111(25.6)
6~6.99	3(3.4)	3(0.7)	1(1.1)	8(1.8)
합계	87(100)	434(100)	87(100)	434(100)

*괄호 안은 단어의 백분율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서의 구조를 정서단어를 통하여 탐색할 때 흔히 감정단어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단어를 분석해서 '활성화' 차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서체험에 '활성화'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감정단어들이 쾌-불쾌와 달리 활성화 수준의 극단값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 제작한 감정단어 목록의 434개 단어와 연구 2에서 대표 감정단어들로 선정된 87개 단어를 대상으로 '쾌-불쾌'와 '활성화' 값에 따른 빈도를 조사하였다(표 4 참조).

표 4에서 87개의 대표 단어를 보면 7점 척도에서 극단값인 1~1.99와 6~6.99 값을 가진 단어들은 '쾌-불쾌' 차원에서 17.2%인데 비해 '활성화' 차원의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1~2.99와 5~6.99의 값들을 합치면 '쾌-불쾌' 차원에서 86.2%이고 '활성화' 차원에서는 32.1%였다. 반면에 중간값인 3~4.99의 값을 가진 단어들은 '쾌-불쾌' 차원의 경우 12.7%이고 '활성화' 차원의 경우에는 67.8%에 이르렀다. 여기서 보듯이 감정단어들은 '쾌-불쾌' 차원의 경우 비교적 쾌-불쾌를 명료히 구분할 뿐 아니라 그 극단적인 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반면에 '활성화' 차원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활성화 수준은 잘 반영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단어들은 아주 드물었다. 87개 감정단어의 쾌-불쾌와 활성화의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2, p>.05$). 감정단어 총집을 구성하는 434개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87개 대표 단어들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감정단어가 활성화의 극단적인 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단어들의 분석에서 '활성화' 차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우리의 가설은 위의 자료 분석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서의 구조를 확인하는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단어의 분석이 정서체험의 구조를 밝힐 것이라는 생각은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안신호 등(1994)의 연구에서도 정서체험은 단극적인 여러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거나 감정단어 자체가 성격상 정서체험과는 차이가 있다. 언어에 의한 정서표현은 정서체험을 정확하게 기술한다고 보다는 타인에게 정서체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표현규칙(display)의 영향이 클 뿐 아니라 내적 상태에 관한 어떤 정보가 중요할지의 판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어적 정서표현의 분석은 정서 자체나 정서체험의 구조라기보다는 정서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을 제시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언어만이 또한 정서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얼굴표정이나 목소리나 제스처 등이 정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측면들을 각각 주로 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정서의 구조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활성화나 경험의 깊이 등이 어떤 다른 통로에 의해서 주로 전달되는지 알게 되면 왜 언어가 이들 차원을 잘 반영하지 않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즉 각 통로들이 서로 협응해서 정서상태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감정단어들의 분석을 통한 정서차원의 확인은 감정단어 목록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었는지와 어떤 분류과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분류과제보다 감정단어 목록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러므로 타당한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재 발표된 상이한 감정단어 목록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며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정서구조를 산출하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참 고 문 헌

안신호 · 이승혜 ·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 한국어 정

- 서단어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7, 107-123.
- 안신호 · 이승혜 ·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8, 150-175.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한덕용 · 강혜자 (2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9-2. 63-99.
- Abelson, R. P., & Serrat, V.(1962). Mutidimensional scaling of facial ex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3, 546-564.
- Alvarado, N.(1998). A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emotion lexicon. *Motivation and Emotion*, 22(4), 329-344.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 (Ms. No. 421)
- Block, J. (1957).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emo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358-363.
- Bush, L. E. II. (1973). Individual differences in mutidimensional scaling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50-57.
- Bush, L. E. II.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Clark,L.A., & Watson, D. (1988). Mood and the mundane : Relations between daily life events and self-reporte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96-308
- Clore, G. L. (1987). The Referential Structure of the Affective Lexicon. *Cognitive Science* 11, 341-364.
- Gladstones, W. H. (1962). A multidimensional scaling study of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14, 95-100.
- Goldberg, L. R.(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16-1229.
- Johnson-Laird, P. N., & Oatley, K.(1989). The language of emotions : An analysis of a semantic field. *Cognition and Emotion*, 3(2), 81-123.
- Osgood, C. E., Suci, G. J., & Tanne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naing*. Urbana, II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ussell, J. A.(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52-1168.
- Russell, J. A.(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no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1.
- Russell, J. A., & Mehrabian, A. (1977). Evidence for a three-factor theory of emo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1, 273-294.
- Russell, J. A. (1991). Culture and the Categorization of Emo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0(3), 426-450.
- Schlosberg, H. (1952). The description of facial expressions in terms of two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29-337.
- Schlosberg, H. (1954). Three dimen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61, 81-88.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1086.
- Storm, C., & Storm, T. (1987). A taxonomic study of the vocabulary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05-816.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부록 1. 한국어 감정 단어들(434개)의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평균

(*표는 87개 대표 단어임)

단 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단 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가뜨하다	3.37	3.26	4.51	3.80	경탄하다	3.76	3.16	3.99	5.35
가련하다	3.92	3.87	3.11	3.17	고깝다	3.08	3.02	2.42	4.18
가소롭다	3.88	4.67	2.48	3.91	고뇌하다	3.54	4.08	2.71	3.72
가없다	4.54	5.11	3.00	3.33	고독하다	4.57	5.18	2.38	2.47
가증스럽다	4.10	4.47	1.88	5.08	고립감	3.52	4.13	2.08	3.28
가책	3.45	4.13	2.55	4.21	고맙다*	5.39	6.13	5.50	3.77
갈등하다*	4.19	5.25	2.59	4.82	고무되다	3.92	3.61	4.73	4.16
감개	3.78	3.45	4.96	4.24	고민하다	4.15	5.55	2.75	3.29
감개무량하다	4.29	3.90	4.97	4.83	고적하다	2.91	2.60	3.24	2.54
감격하다	5.07	5.46	5.43	5.19	곤혹스럽다	4.13	4.43	2.26	5.28
감동하다*	5.24	5.50	5.45	4.47	끝나다	3.50	3.92	2.25	5.25
감명	4.06	4.24	5.28	4.01	공감하다*	5.01	5.09	5.07	3.74
감미롭다	4.93	4.88	5.54	3.93	공포	4.31	5.29	2.32	6.02
감복하다	3.46	3.12	4.63	4.59	공허하다	4.03	3.94	2.73	2.55
감탄하다*	4.79	5.18	5.11	5.03	쾌쌈하다*	4.38	4.90	2.11	5.10
감홍	3.48	3.25	4.59	4.21	괴롭다*	4.76	5.42	1.93	3.85
감회	3.95	4.05	4.67	3.98	교감하다	4.37	4.22	5.43	4.41
개탄하다	3.35	3.08	2.33	5.18	구슬프다	3.89	3.61	2.80	3.74
거부감*	4.26	4.82	1.98	4.54	굴욕	3.71	4.10	1.77	5.28
거북하다	3.92	4.66	2.58	4.14	권태롭다	3.89	3.99	2.67	2.81
걱정하다	4.88	6.02	2.94	3.94	귀찮다*	4.68	5.65	2.58	3.63
집나다	4.77	5.43	2.61	5.56	그럽다*	5.68	5.82	4.37	3.18
격노하다	3.80	3.70	1.98	5.89	근심걱정*	3.89	4.96	2.36	4.37
격동되다	4.05	3.82	4.11	5.92	근심하다	3.97	4.69	2.36	3.98
격분하다	4.04	4.36	2.11	5.82	궁지	4.13	4.55	5.74	3.85
격양하다	3.16	2.49	2.33	5.58	기겁하다	4.10	4.39	2.74	5.67
걱정	3.83	3.72	3.57	5.60	기고만장하다	3.73	4.18	3.50	5.52
격하다	3.94	3.87	2.70	5.41	기겁다	2.84	2.46	3.37	3.79
결연쩍다	3.93	3.86	3.04	3.46	기막하다	4.52	5.19	2.67	4.72
경멸하다*	4.13	4.61	1.74	5.59	기쁘다*	5.98	6.26	5.94	5.56
경악하다	3.98	4.13	2.15	6.03	기절초풍하다	3.87	4.47	2.64	5.76
경애하다	3.88	3.49	4.90	4.06	기죽다	4.03	4.97	2.51	2.94
경외하다	3.91	3.94	4.34	3.83	긴장하다	4.45	5.42	3.24	4.99
경쾌하다	5.08	5.35	5.85	5.28	꺼리다	3.86	4.36	2.58	4.04
꺼림직하다	4.29	4.50	2.45	3.76	떠름하다	2.73	2.75	2.59	3.61
깨름직하다	3.82	3.93	2.39	3.60	떨떠름하다	3.67	3.83	2.67	3.02
끔찍하다	4.24	5.20	2.13	5.45	뿔다	3.50	3.96	2.48	4.12
낙	4.05	4.03	5.39	4.08	땀땀하다	5.15	5.60	5.40	4.15
낙담하다	3.83	4.29	2.01	3.23	뜨끔하다	4.24	4.74	2.92	4.76
낙망하다	3.27	3.46	1.93	3.05	뜨악하다	3.01	2.41	2.59	5.46
낙심하다	3.76	4.01	2.17	3.20	마땅찮다	3.57	4.25	2.46	4.07
남부끄럽다	3.84	4.21	2.66	4.39	막막하다	4.17	4.92	2.44	3.52
남부럽다	3.26	3.93	3.37	3.89	만족하다*	5.34	5.92	5.64	3.98
낭패스럽다	3.14	3.66	2.51	4.62	맘놓다	4.04	4.70	4.98	2.28
낯간지럽다	4.03	4.29	3.36	4.55	망설이다*	4.46	5.59	2.97	3.81
낯뜨겁다*	4.45	4.74	2.88	5.31	망연자실하다	3.63	3.64	2.16	3.83
노기	2.98	2.82	2.46	4.80	망연하다	3.21	2.69	2.67	3.32
노발대발	3.85	3.94	2.10	6.37	매료되다	4.68	4.40	5.25	4.69
노심초사하다	3.92	4.21	2.39	4.99	매혹	3.85	4.34	4.84	4.59
노엽다	3.40	3.38	2.48	5.32	맥빠지다	4.02	4.65	2.50	2.17
노파심	3.39	4.18	3.05	4.40	머쓱하다	3.92	3.61	3.17	3.29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단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단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노하다	3.91	3.86	2.16	5.76	멋쩍다	4.05	4.58	3.38	3.55
놀라다*	4.85	5.56	4.12	5.67	모멸	3.34	3.37	1.34	5.62
놀랍다	4.77	5.58	4.35	5.61	무감동하다	2.97	3.83	3.17	2.12
눈물겹다	4.43	5.24	3.18	4.02	무덤덤하다	4.16	4.66	3.57	2.62
누우치다	4.59	5.34	3.70	3.57	무력감	3.87	4.28	2.19	2.11
달가워하다	4.40	4.18	4.63	3.99	무료하다	4.05	4.55	2.89	2.23
담담하다	4.32	4.81	3.53	2.70	무색하다	3.50	4.10	2.98	2.79
담담하다*	4.73	5.54	2.20	3.64	무섭다*	5.06	5.82	2.58	5.39
당혹하다	4.17	4.53	2.94	4.90	무시무시하다	4.03	4.82	2.54	5.16
당황하다	4.46	5.55	3.07	4.83	무안하다*	4.60	5.38	2.91	3.69
덤덤하다*	4.43	4.71	3.76	2.59	몽글하다	4.71	4.50	4.48	4.15
도취하다	4.24	4.37	5.10	4.94	미안하다*	5.02	5.97	2.91	4.01
동감하다	4.97	5.04	5.33	4.19	민망하다	4.50	5.26	2.85	4.39
동경하다	4.31	4.40	4.81	3.73	밧다	4.86	5.62	2.25	5.04
동병상련	3.85	4.46	3.85	3.74	박진감	3.97	4.29	4.94	5.41
동요하다	3.92	4.46	3.42	4.42	반감	4.24	4.66	2.17	5.48
동정하다	4.65	5.35	3.45	3.22	반갑다*	5.86	6.14	5.91	5.29
두렵다	4.75	5.40	2.43	5.32	반하다*	4.78	5.18	4.94	4.63
들뜨다	5.03	5.16	4.98	5.24	반항심	3.83	4.92	2.58	5.45
따분하다	4.53	5.34	2.77	2.59	발끈하다	4.28	4.38	2.57	5.54
딱하다	3.94	4.29	2.99	3.98	배신감*	4.00	4.93	1.73	5.72
번뇌하다	3.11	3.59	2.83	3.68	서러워하다	4.62	5.37	2.41	4.05
번민하다	3.60	3.82	2.48	3.47	서럽다*	4.96	5.22	2.51	4.32
보람차다*	4.90	5.36	5.69	4.66	서먹하다*	4.16	4.93	2.67	3.61
부끄럽다*	4.97	5.63	2.82	4.68	서운하다	4.69	5.76	2.84	3.18
부럽다*	5.23	5.77	4.00	4.37	섬뜩하다	3.19	3.11	2.89	4.69
부아	2.89	2.87	2.28	4.88	선호하다	4.18	4.96	4.83	4.38
분개하다	4.12	4.11	2.22	5.63	설레다*	5.52	5.29	5.21	5.26
분노하다	4.76	5.13	1.84	6.17	설위하다	3.29	3.22	2.57	4.04
분통	3.66	3.95	1.93	5.51	섬뜩하다	4.45	4.52	2.17	5.42
분하다	4.59	5.06	2.22	5.41	섬섬하다	4.90	5.74	2.47	3.83
불만	4.40	5.40	2.47	4.93	성나다	4.30	4.92	2.33	6.10
불만족하다	3.80	4.52	2.38	3.99	성내다	4.36	4.92	2.75	5.86
불쌍하다	4.74	5.74	2.97	3.33	성취감	4.52	5.00	5.84	5.50
불안하다*	4.69	5.75	2.51	4.88	소름끼치다	4.64	5.18	2.35	5.85
불쾌하다	4.74	5.48	2.13	5.46	소외감	3.90	4.89	2.16	3.00
불편하다*	4.27	5.61	2.53	4.45	속상하다*	4.67	5.70	2.32	4.48
불행하다*	4.36	5.52	2.16	4.19	속시원하다	5.20	5.40	5.43	4.15
비련	3.51	3.73	2.75	3.58	속타다*	4.40	4.76	2.50	4.92
비분강개하다	3.29	2.77	2.80	5.67	송구하다	3.09	3.28	3.06	3.66
비에	3.66	3.97	2.71	4.41	송연하다	2.52	1.90	3.32	3.07
비장하다*	4.22	4.23	3.36	5.22	수심	3.14	2.91	2.59	3.41
비참하다*	4.52	5.18	1.91	4.39	수치	4.01	4.41	2.16	4.76
비탄하다	3.49	2.92	2.12	5.03	숙연하다	3.48	3.63	3.60	2.94
비통하다	3.70	3.49	1.80	5.10	순정	4.10	4.68	5.01	3.28
뼈아프다	3.49	3.74	2.24	5.16	스산하다	3.07	3.02	2.85	3.72
뽀로통하다	3.72	3.73	2.71	3.75	슬프다*	5.08	5.85	2.69	3.44
뿌듯하다*	5.31	5.31	5.75	4.63	시기하다	4.08	4.79	2.53	4.61
사랑스럽다*	5.77	6.12	6.09	4.52	시름겹다	2.52	2.81	2.40	3.17
사모하다	4.45	4.47	5.11	4.38	시무룩하다	4.27	4.92	2.70	2.63
사무치다*	4.12	4.26	2.49	4.81	시원섬섬하다	4.71	4.96	3.89	3.61
살맛나다	4.61	4.92	5.75	5.16	시큰둥하다	4.12	4.73	2.88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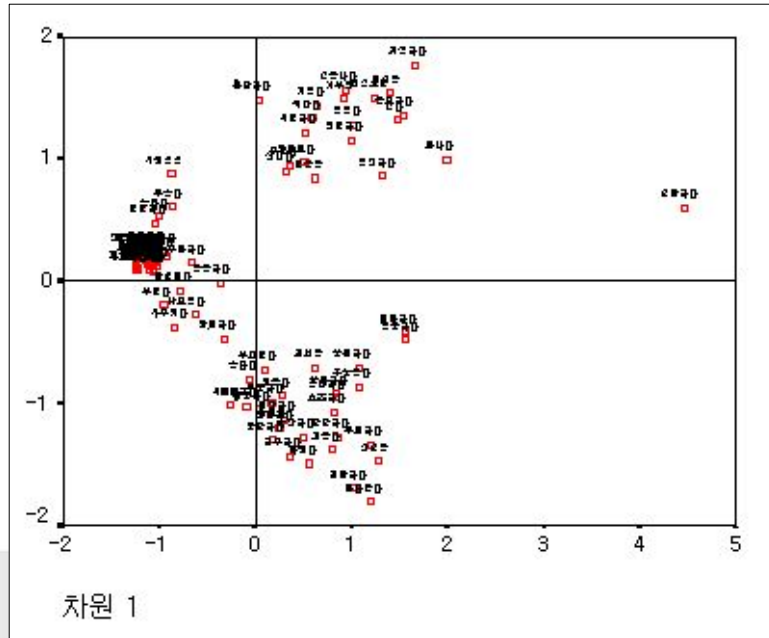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단 어	원형성	친숙성	패-불패	활성화	단 어	원형성	친숙성	패-불패	활성화
상실감*	4.18	4.34	2.29	3.15	식상하다	4.03	4.61	2.98	3.11
상심하다	3.90	4.37	2.28	3.52	신경질	4.24	5.23	2.09	5.51
상쾌하다	5.50	5.85	5.99	5.16	신나다	5.80	5.76	5.96	5.89
상큼하다*	4.95	5.08	5.61	4.32	신명나다	4.70	4.15	5.61	5.36
샅쭉하다	3.21	2.64	2.83	3.37	신물나다	3.72	4.35	2.20	3.93
쌈내다*	4.62	4.92	2.75	4.98	신바람나다	5.18	4.87	5.72	5.70
서늘프다	4.72	4.98	2.33	3.81	실망하다*	4.64	5.66	2.19	3.30
실의	3.24	3.54	2.31	3.60	애잔하다	3.87	3.39	3.44	3.02
싫다*	5.03	5.68	2.24	4.76	애정	4.61	5.46	5.33	4.32
싫증나다*	4.45	5.66	2.45	3.94	애증	3.29	3.48	2.72	3.94
심드렁하다	3.19	2.71	2.80	3.32	애지중지하다	4.25	4.50	4.82	4.44
심란하다*	4.65	5.17	2.59	4.01	애착	3.73	4.47	4.21	4.54
심려하다	3.25	3.66	2.76	3.76	애처럽다	3.88	4.01	3.01	3.66
심심하다	4.43	5.76	3.31	2.66	애타다	4.40	4.64	2.45	5.07
심통	3.59	3.82	3.42	4.67	애통하다	3.87	3.90	2.07	4.83
싱숭생숭하다	4.14	4.93	3.09	3.37	애투하다*	4.81	4.66	4.41	4.16
쑥스럽다	4.61	5.45	3.44	3.56	애환	3.50	3.59	2.99	3.81
쉴쉴하다	4.84	5.41	2.54	2.80	야속하다	3.79	4.40	2.36	4.56
썩썩하다	4.35	4.74	2.64	3.08	약오르다*	4.42	5.39	2.62	5.01
아니꼽다	4.24	4.67	2.21	4.28	알밟다	4.91	5.47	2.28	4.99
아련하다	4.32	4.13	4.03	3.11	어이없다	4.11	5.18	2.89	3.82
아리다	3.45	3.15	3.36	3.72	어처구니없다	4.37	5.18	2.69	4.05
아쉽다*	5.20	5.84	3.07	3.56	억울하다*	4.77	5.42	1.90	4.41
아슬아슬하다	3.95	5.13	3.31	5.20	언짢다	4.22	4.63	2.50	4.13
아연실색하다	3.50	3.34	2.65	4.75	어한	3.18	3.13	3.15	3.63
아연하다	2.99	2.54	2.90	3.24	역겹다*	4.68	4.92	1.67	5.13
아찔하다	4.24	4.85	2.51	5.61	역정	3.34	3.72	3.02	5.18
안달복달하다	3.40	3.68	2.75	5.61	연모하다	3.68	3.48	4.45	4.07
안달하다	3.81	4.21	2.52	4.93	연민	4.39	4.48	3.86	3.34
안도하다	4.59	4.67	4.78	2.01	연연하다	3.27	3.87	3.00	3.48
안락하다	4.56	4.50	5.41	1.90	연정	3.97	4.05	4.92	3.63
안심	4.45	5.03	5.00	2.39	열광하다*	4.87	4.61	5.52	6.66
안쓰럽다	4.61	5.10	2.97	3.34	열등감*	4.04	5.03	1.86	4.86
안정되다	4.81	5.50	5.11	2.31	열애	3.88	4.25	5.07	5.73
안타깝다*	4.82	5.56	2.95	3.52	열정	4.79	5.18	5.51	5.74
암담하다	4.18	4.53	1.79	3.33	염려하다	4.15	4.96	2.76	3.95
암울하다	3.81	4.38	1.98	3.31	영광스럽다	5.00	5.02	5.99	5.20
애	3.35	3.48	4.63	3.99	영예롭다	3.87	3.89	5.26	4.62
애꿎다	4.02	3.82	2.94	5.33	온정	4.01	4.02	5.11	3.09
애달프다	4.21	4.17	2.95	4.02	외롭다*	5.02	5.66	2.28	2.76
애닦다	3.68	3.56	3.14	3.88	우려하다	3.69	4.51	2.59	3.95
애도하다	3.74	4.16	2.96	3.32	우수	3.69	3.77	4.28	3.38
애련	3.50	3.38	3.49	4.01	우습다*	4.46	5.71	3.72	4.44
애석하다	3.91	4.26	2.67	3.78	우울하다*	4.94	5.81	2.49	2.80
애수	3.71	3.63	3.93	3.69	우쭐하다	4.02	4.39	3.46	4.27
울분	3.97	4.13	2.37	5.74	정답다	5.01	5.15	5.32	3.97
울적하다	4.31	4.55	2.56	2.63	정욕	3.56	4.09	3.72	5.91
울화	3.40	3.92	1.87	5.51	정한	3.03	2.43	3.35	3.79
울화통	3.75	4.14	1.29	5.93	조마조마하다	4.57	4.92	2.96	5.28
원망하다	4.40	5.24	1.86	4.63	조바심	4.04	4.24	2.80	5.21
원통하다	4.05	4.15	1.85	5.22	좋다*	5.90	6.12	5.54	5.13
원한	3.72	4.36	1.87	5.61	좌절하다	3.82	5.01	1.87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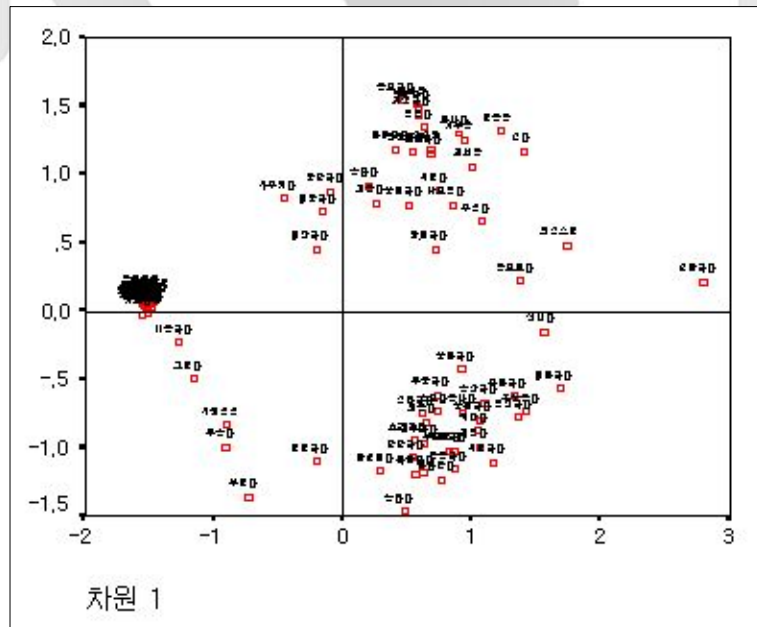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단 어	원형성	친숙성	패-불패	활성화	단 어	원형성	친숙성	패-불패	활성화
위압감	3.62	4.08	2.32	4.98	죄송스럽다	4.44	5.56	2.68	3.89
위축감	3.32	3.73	2.55	3.67	죄스럽다	3.66	3.71	2.20	3.94
위화감	3.38	3.92	2.65	4.56	죄의식	3.45	4.42	2.03	4.12
유감	4.11	4.79	2.72	4.16	죄책감*	4.08	4.83	2.13	4.07
유쾌하다*	5.13	5.51	5.58	5.37	주눅들다*	4.18	4.60	2.30	2.79
음울하다	3.25	3.34	2.07	3.08	즐겁다*	5.87	6.09	5.89	5.54
의기소침하다	4.11	4.60	2.51	2.79	즐기다	4.72	5.93	5.57	5.14
의기양양하다	4.66	4.74	4.92	5.24	증오하다*	4.54	5.18	1.75	5.85
의분	2.84	2.54	3.38	4.39	지겹다*	4.76	5.61	2.51	3.20
의심*	4.10	5.03	2.33	4.30	지긋지긋하다	4.33	5.12	2.10	4.05
의아하다	3.31	3.45	3.30	4.10	지루하다	4.72	5.56	2.64	2.14
의혹	3.34	4.41	2.72	4.51	지리하다	3.18	3.14	2.91	3.07
이뻐하다	4.73	5.53	5.42	4.29	진노하다	3.06	3.21	1.97	5.36
자괴	3.03	2.84	2.27	3.82	진저리나다	3.94	4.41	2.07	4.67
자궁	3.94	3.97	5.37	4.48	질겁하다	3.45	3.74	2.45	5.41
자기혐오	3.18	3.71	1.89	4.80	질리다	4.36	5.03	2.29	3.94
자랑스럽다*	5.06	5.55	5.72	4.98	질색하다	3.73	4.34	2.23	5.07
자만심	4.03	4.88	2.67	4.75	질투하다	4.47	5.38	2.58	5.25
자부하다	4.13	4.57	5.02	4.02	짜증내다	4.73	5.87	2.06	4.88
자신만만하다	4.97	5.71	5.28	5.32	짜사랑하다	4.29	5.40	4.28	4.41
자족하다	4.01	3.97	5.11	3.89	쟁하다	4.90	4.95	4.09	4.67
자책하다	3.82	4.40	2.24	4.20	착잡하다	4.17	4.50	2.83	2.83
재미있다*	5.70	6.19	5.72	4.79	참담하다*	4.03	4.25	1.52	3.26
적의	3.30	3.69	2.00	4.88	창피하다*	4.76	5.69	2.54	4.20
적적하다	3.89	3.69	2.94	3.35	처량하다	4.25	4.60	2.51	2.81
전전긍긍	3.34	4.13	2.70	4.39	처연하다	2.89	2.35	2.85	3.06
절망하다*	4.18	5.05	1.91	3.86	처절하다	3.97	4.69	1.89	4.35
절박감	4.13	4.52	2.27	5.28	처참하다	4.34	4.55	1.64	4.50
절절하다	3.36	3.15	2.69	4.15	체념하다	4.08	4.59	2.47	3.15
정감	4.97	4.31	5.56	3.44	초조하다*	4.67	5.43	2.74	4.88
정겹다*	5.27	5.23	5.56	4.02	충족감	4.26	4.58	5.27	4.15
측은하다	4.17	4.54	3.07	3.40	허탈하다	4.36	4.99	2.67	3.20
치떨리다	3.77	4.00	1.80	5.62	허허롭다	2.88	2.69	3.07	3.06
치욕스럽다	4.18	4.60	1.60	5.85	혐오하다	4.35	5.04	1.80	5.57
친애하다	3.95	4.22	4.96	4.04	호감	5.62	5.31	5.72	5.03
침울하다	3.67	4.03	2.03	2.85	혼비백산하다	3.44	3.79	2.32	5.98
침통하다	3.74	3.73	1.97	4.41	홀가분하다*	5.71	5.18	6.24	3.26
캧기다	3.66	4.05	2.59	4.49	화나다*	4.86	5.65	2.17	5.91
코웃음	3.34	4.69	2.86	3.92	환멸	3.49	3.34	1.71	5.62
쾌감	5.31	5.15	5.79	5.91	환희	4.50	4.70	5.72	5.54
태평스럽다	3.82	4.44	4.55	2.45	황공하다	3.51	3.67	4.25	4.57
토라지다	4.19	4.56	2.70	4.36	황당하다*	4.75	5.53	3.30	4.92
통분	2.91	2.50	2.52	5.51	황송하다	3.63	3.58	4.07	4.18
통쾌하다*	5.03	5.45	5.79	5.71	황홀하다*	5.30	5.18	5.72	5.14
통탄하다	3.62	3.16	1.83	5.36	회개	3.19	3.70	3.91	3.58
통한	3.12	3.05	2.16	4.94	회오	2.35	1.70	3.63	4.10
패배감	3.96	4.72	1.63	4.20	회한	3.28	3.42	2.49	4.41
편안하다*	5.47	5.95	5.40	2.33	후련하다	5.44	5.30	5.33	3.61
편하다	5.23	6.01	5.54	2.70	후회하다*	4.74	5.82	2.45	4.06
평안하다	4.80	4.78	5.63	2.06	흐뭇하다	5.26	5.46	5.48	3.85
평온하다	4.86	4.99	5.46	2.46	흠모하다	4.13	4.11	4.94	4.34
평화롭다*	4.95	5.36	5.62	2.24	흡족하다	4.90	4.90	5.77	4.14
플죽다	3.66	4.25	2.50	2.69	흥겹다	5.52	5.09	5.72	5.50
한	3.86	4.43	2.35	4.67	흥나다	4.73	4.54	5.50	6.00
한땀하다*	4.01	4.43	1.60	5.09	흥미롭다	5.05	5.82	5.56	4.76
한스럽다	3.92	3.61	2.27	4.13	흥미진진하다	5.07	5.61	5.40	5.21
한탄하다	3.78	3.74	2.02	5.06	흥분	4.92	5.61	4.44	6.02
행복하다*	5.88	6.08	6.16	4.70	흥취	3.40	3.07	4.71	5.08
향수	4.29	4.54	4.99	2.56	희	3.65	3.22	5.21	4.61
허망하다	3.96	4.31	2.11	2.87	희비	3.76	4.08	3.80	4.61
허무하다*	4.40	5.29	2.28	2.92	희열	4.49	4.42	5.32	5.44
허전하다	4.51	5.27	2.91	2.53	희희낙락하다	4.16	4.17	4.71	4.80

부록 2. 1, 2차원에서 87개 감정단어의 분포(자유 유사성 분류과제)



부록 3. 1, 2차원에서 87개 감정단어의 분포(제한 유사성 분류과제)



Making a List of Korean Emotion Terms and Exploring Dimensions Underlying Them

In-Jo Park Kyung-Hwa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identify the dimensions underlying Korean emotion terms, two studies were performed. Study 1 yielded a list of Korean emotion words and Study 2 explored its structure. The emotion words were selected from 'The Frequency of Korean Word Usage' published by the Center for Linguistic Informatics Development in Yonsei University. Te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generated a list of 434 emotion words. 365 undergraduate students rated the words in terms of prototypicality, familiarity, pleasantness-unpleasantness, and activation. In study 2, three experts selected 87 representative emotion terms from the 434 word list. 80 undergraduates participated in similarity sorting task of the words selected. The data were subjected to MDS analysis and yielded two dimensions: pleasantness-unpleasantness and other focused-self focused emotion. While previous studies of English emotion words provided support for pleasantness-unpleasantness and activation dimensions, neither the present study nor Ahn's study(1993, 1994) produced activation dimension. The difference was explained in terms of selection criteria for emotion words and lack of Korean emotion terms with extreme degree of activation.

Key words : prototypicality, familiarity, pleasantness-unpleasantness, activation, unconstrained similarity sorting task, constrained similarity sorting task, other focused-self focused emotion

원고접수 : 2004년 12월 2일
심사통과 : 2004년 1월 28일